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장은혜** · 이동귀***

초 록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W초등학교와 M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들 299명 이었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둘째, 초등학생이 학교 장면에서 보다 적응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 및 상담자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특히 정서인식과 정서표현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정서표현, 사회적 유능성, 정서인식명확성

* 본 연구는 장은혜(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석사논문(2014년 2월, 지도교수 : 이동귀)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통계분석을 도와 준 배병훈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교신저자, lee82@yonsei.ac.kr

I. 서 론

학교 현장에서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대화나 부드러운 말투, 양보하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화를 내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아동도 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아동은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은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실패한다(Johnson & Roger, 2000).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전체 문제 중 대인관계나 사회 적응상의 문제가 39.7%를 차지하며(이정화, 이소희, 2002), 그 중에서도 또래관계 형성, 대인적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김은정, 2010; 김지원, 2009)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상담자의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아동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경험이 그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인간은 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함께 경험하기도 한다.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윤혜정, 1995). 또한 개인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또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표현성은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lberstadt, 1986; Riggio & Friedman, 1982)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Greenberg, Lengua and Pinderhughes(1999)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표현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감정조절 기술을 발달시키며 가족 내의 긍정적인 정서환경은 정서에 대한 지식, 긍정적 감정, 형제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은 학령기에 들어가면서 부모나 가족 뿐 아니라 교사와 또래관계로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예: 5, 6학년)으로 갈수록 또래 친구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Hartup, 1989). 이처럼 아동기에는 주변의

사회적 관계, 즉,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우며,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형성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ullerton & Ursano, 1994).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특히 정서변화가 심하고(박영애, 최은경, 2000) 또래집단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강화되는 시기(송명순, 2007)로 이 때, 적절하게 또래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은 추후 대인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관계형성능력, 즉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이후 성인기의 성공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와 같은 능력은 아동이 겪는 최초의 환경인 가정에서 함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며 정서표현의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Dunn & Brown, 1994). 지금껏 또래관계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보이는 정서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안소연(2009)의 연구와,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동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하며, 감정이입 능력 또한 뛰어났다고 보고한 우수경(200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물론 긍정적인 정서표현 뿐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정서표현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고 정서표현의 방향성(예: 긍정성 혹은 부정성)보다는 명확한 정서 인식과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의 적절성 및 정서조절이 중요하다는 주장(예: Salovey et al., 1995)이 제기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에 주목하고자 한

다. Fredrickson(2001)은 긍정 정서가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뿐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적·신체적·지적인 능력의 증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정서 자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창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전체나 정서표현의 적절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측면이 아동의 정서경험,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보다 적응적인 정서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assidy, Parke, Vygotsky and Braungart(1992)는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의 정서표현성 수준과 정서이해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이해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Eisenberg et al.(2000)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으로 하여금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 수준이 불필요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도움으로써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둘째, 이 두 변인의 이행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성이 각각 그 과정을 설명하는 변인, 즉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첫째, 이해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 문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집단주의, 특히 가족중심주의가 발달한 한국 문화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generalizability)의 측면에서 분명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아동의 정서표현성,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변인들 중에서 일부 변인간의 관계만 산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 역시 제한점이다. 예를 들어, 이해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간의 관계는 살펴보았으나 그 외의 변인, 즉 아동의 정서표현성 및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별개이며 이 두 측면 중 하나만을 고려해서는 아

동의 정서적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되었듯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가 이후 삶에서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정서적 경험이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학교 장면에서 아동의 적응을 돕는 개입을 고안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즉, 요점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아동의 정서표현성,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통합적 관계를 단일 모형에서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아동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예측변인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학교 장면에서 교사 및 상담자가 어떤 과정변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할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증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발달의 시작점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그들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동시에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및 정서표현성을 경유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다시 말해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에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의 매개효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그림 1)을 연구모형으로, 그리고 비교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그림 2)을 상정하였다. 이 두 모형을 비교하는 이유는 매개변인으로 상정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주 예측변인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직접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설명력이 있는지, 즉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이르는 기제 및 과정을 명세화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사 및 상담자가 어떤 매개변인(예: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성)에 집중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경우,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이 성인기의 사회적 능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후천적으로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길러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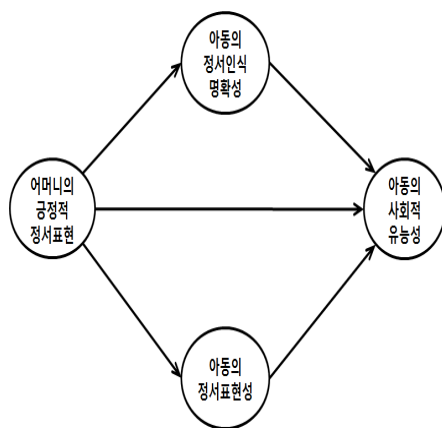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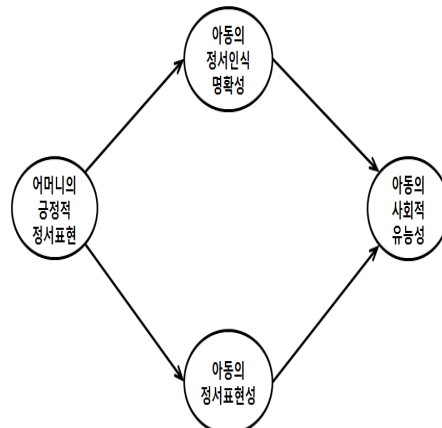


그림 2. 비교모형(완전매개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유능성

사회는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인지적·정서적 기술이 달라지고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해왔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정의하였는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유진희, 2007)

Hubbard와 Coie(1994)는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기술중심 접근방식(skill-based approach)과 준거중심 접근방법(criterion-based approach)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기술중심 접근방식이란 사회적 유능성을 사회적 기술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방식이고 준거중심 접근방식이란 아동이 성취하는 사회적인 결과를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며 아동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지가 사회적 유능성의 준거가 된다.

또, O'Malley(1977)는 사회적 유능성을 동물행동학적 관점, 성격구조론적 관점,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과 같이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동물행동학적 관점이란 사회적 유능성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상황에 적합한 행동들을 형성, 발달시켜 나감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성격구조론적 관점은 사회적 유능성을 여러 가지 분리된 인성적 구조요인의 부가적 결과물로 본다. 즉,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chaefer(1961)는 애정, 외향성, 접근성, 과제 지향성 등을 긍정적 성격특성으로, 적대감, 내향성, 회피 등을 부정적 성격특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사회적 유능성을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고, 여기에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에 맞게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Weinstein(1969)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개인적 자원을 보유하는 것 등을

사회적 유능성의 요소로 보았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한 자아와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이다.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거나 또래에게 거부되는 등 발달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후 삶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권연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인식능력, 아동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ity)은 ‘얼굴 표정을 포함하여 언어적·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비억압적이고 개방적인 정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Halberstadt, 1986; Riggio & Friedman, 1982). 정서표현성은 기쁨, 환희 등 긍정 정서와 화,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로 정의되어 왔다(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그러나 학자들은 정서표현성 외에 정서성,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분위기, 정서적 예민성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정서성(emotionality)은 정서적 표현 뿐 아니라 정서적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Kochanska, Coy & Murray,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면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정서적 행동 반응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정서표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정서 표현성을 성격 특성의 하나로써 연구하려는 시도가 King과 Emmons(1990)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에서의 갈등성을 구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6문항으로 된 정서표현 질문지(Emotional Expressivity Questionnaire; EEQ)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 정서표현, 긍정 정서표현 및 친밀감 표현을 측정하는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그 총점을 정서표현성의 정도로 간주한다.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Eisenberg et al.(2000)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중 긍정적 정서표현은 감사를 표시하거나 칭찬하는 등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의미하는데(Halberstadt, 1986),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긍정적일 때 아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정서표현이 부정적일 때는 또래관계에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안소연, 2009).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하며, 감정이입 능력 또한 뛰어났다(우수경, 2003). 긍정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보고하는 불행감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동정심을 보고하였으며,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감정조망 수용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 McNally, 1993). 또한 가족 내에서의 정서표현은 정서조절 및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반해(Jones, Abbey & Cumberland, 1998), 가족의 정서표현성이 낮거나,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은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아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내면화된 불안이나 고통반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Buck, 1984). 이처럼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적 경험, 정서표현,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

2)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긍정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의 정서표현성(Cassidy et al., 1992)과 정서이해력이 높았고,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분노, 화, 슬픔 등의 부정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그것은 아동의 정서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

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김호정, 2002) 어머니의 긍정적인 표현이 많을수록 아동의 감정조망 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미애, 2002).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하여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 역할을 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의 정서에 반응함으로써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정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그 중에서도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적 경험, 정서표현성,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Halberstadt et al., 1995),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패턴과 틀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Eisenberg et al., 2003).

3)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DePaulo(1992)에 의하면 표현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타인에게 더 많이 사랑 받으며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유사하게, Emmons와 Colby(1995)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됨을 밝혔다. 또한 한정원(1997)은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나 친밀감을 잘 표현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 획득이나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과는 상관없지만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각 개인이 대인관계 속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개인이 맺는 대인관계 양식의 중요한 특성이며 나아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진희, 2006).

3.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emotional clarity)은 ‘자기 내부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여러 감정들을 구별해내는 능력’이다. 정서인식은 정서정보 처리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다양한 정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Salovey et al., 1995).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이혜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인식을 더 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Denham et al.(1994)은 어머니가 실험실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경우 자녀의 정서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가족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정서와 정서표현의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Eisenberg와 McNally(1993)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한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보고한 개인적 고통의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동정심을 보였으며 여아와 남아 모두에서 타인의 조망에 대한 수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며, 신체적·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더 높다(King & Emmons, 1990). 그 이유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이 적고, 문제를 야기하는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Salovey et al., 1995).

따라서 정서인식능력이 뛰어난 아동들은 또래관계에서도 유능성을 보이는데 황인희(2007)는 정서인식을 명확히 할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교사 적응 및 학업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유진(2006)의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서 인식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즉,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을 때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다(김종만, 1999).

Ⅲ.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7월 1일 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W초등학교와 금천구에 위치한 M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의로 학교 두 곳을 선택한 후 이 안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같은 날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이 중 척도 1개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93명의 자료(W초등학교 175명, M초등학교 118명)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146명으로 전체의 49.8%였으며 여학생은 145명으로 전체의 49.5%였다. 성별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은 2명이었다. 학년은 5학년(33.4%)과 6학년(66.6%)으로만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만을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가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이 때 특히 정서변화가 많이 나타나며(박영애, 최은경, 2001) 또한 또래집단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송명순, 2007) 추후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백미애(2002)가 사용한 Halberstadt et al.(1995)의 가정내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박보은(2008)이 성인 자녀 회상용으로 수정한 것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를 초등학교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W초등학교 6학년 아동 5명에게 읽게 한 뒤, 모르는 낱말을 표시하게 해 아동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뒤, 수정한 질문지를 W초등학교 교사 2명으로 하여금 초등학교생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수정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23문항을 확정하였다¹⁾.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문항 간 내적합치도 계수(이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et al.(1995)이 개인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것을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타당화한 특질 초기분 척도 (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그리고 부정적인 상태를 종결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1문항으로 되어 있다. 형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는 5점 Likert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전체 .82, 정서에 대한 인식 .74, 정서에 대한 주의 .69,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72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정서표현성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성 질문지(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EEQ는 친밀한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표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 되어 있다. 기존에 하정(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성 질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초등학생)이 반응을 할 때 기울여야하는 주의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줄여서 사용하였다. 하정(1997)은 요인부하량이 낮은 6번과 12번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하위요인을 친밀한 정서표현 4문항, 부정적 정서표현 4문항, 긍정적 정서표현 6문항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채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아동의 정서표현성 전체 .75, 친밀한 정서표현 .65, 부정적 정서표현 .52, 긍정적 정서표현 .61로 나타났다.

1) 지면 관계상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주축분해와 프로맥스 회전, 평행분석 결과, 문항별 요인부하량, 평균, 표준편차 등)는 생략하며 관심 있는 독자는 교신저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음.

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금옥(1998)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 .98, 사교성 .90, 대인적응성 .88, 사회참여도 .92, 주도성 .92, 인기도 .9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Sobel 검증을 통해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앞에서 확인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인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성, 사회적 유능성의 기술 통계를 구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총점 및 하위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계산하였다(표 1). 이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추후 변인들 간 관련성을 연구하는 구조방정식 분석에 있어서 측정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세 개의 측정변인(어머니긍정정서 1, 어머니긍정정서 2, 어머니긍정정서 3)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293)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어머니긍정정서 1	3.63	.60	.16	-.31
	어머니긍정정서 2	3.66	.66	-.27	-.24
	어머니긍정정서 3	3.62	.65	-.14	.16
	총점	3.63	.58	.03	-.32
아동의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에 대한 인식	3.34	.55	.21	.40
	정서에 대한 주의	3.26	.68	-.04	.87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3.36	.75	-.14	.14
	총점	3.32	.49	.28	.18
아동의 정서표현성	친밀한 정서표현	2.48	.79	.15	-.47
	부정적 정서표현	2.92	.69	.01	.62
	긍정적 정서표현	3.26	.67	.20	-.16
	총점	2.94	.55	.06	-.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사교성	3.45	.76	.04	-.20
	대인적응성	3.47	.67	.04	.55
	사회참여도	3.71	.81	-.32	-.27
	주도성	3.29	.77	.03	.43
	인기도	3.17	.79	-.24	.31
	총점	3.41	.70	-.01	.25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하위요인 및 전체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의 중간과 중간 이상에 위치하였다. 더불어 각 변인들의 왜도가 ± 2 , 첨도가 ± 7 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변인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아동의 정서표현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r = .467$), 아동의 정서표현성($r = .4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r = .515$)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의 경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 = .467$), 아동의 정서표현성($r = .385$),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r = .462$)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 = .40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r = .385$),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r = .480$)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 = .515$),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r = .462$), 아동의 정서표현성($r = .480$)과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상의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N=29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어머니 긍정적 정서표현	-																	
2. 어머니정서표현 1	.927	-																
3. 어머니정서표현 2	.926	.810	-															
4. 어머니정서표현 3	.900	.763	.738	-														
5.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467	.397	.389	.416	-													
6. 정서에 대한 인식	.363	.331	.262	.327	.873	-												
7. 정서에 대한 주의	.260	.220	.258	.231	.631	.320	-											
8.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425	.349	.387	.375	.749	.478	.293	-										
9. 아동의 정서표현성	.402	.363	.377	.363	.385	.241	.339	.334	-									
10. 친밀한 정서표현	.266	.254	.282	.228	.289	.173 ^{ns}	.262	.249	.768	-								
11. 부정적 정서표현	.232	.207	.202	.221	.117 [*]	.115 ^{ns}	.127 [*]	.010 ^{ns}	.702	.385	-							
12. 긍정적 정서표현	.401	.344	.358	.363	.431	.250	.352	.436	.817	.409	.343	-						
1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515	.490	.472	.451	.462	.343	.242	.476	.480	.352	.251	.495	-					
14. 사교성	.475	.455	.425	.416	.434	.325	.221	.421	.426	.304	.174 ^{ns}	.465	.920	-				
15. 대인적응성	.460	.430	.411	.408	.478	.378	.240	.456	.294	.225	.059 ^{ns}	.347	.868	.768	-			
16. 사회참여도	.437	.400	.410	.382	.448	.314	.254	.483	.448	.273	.205	.504	.890	.783	.717	-		
17. 주도성	.491	.481	.481	.412	.397	.299	.239	.385	.449	.344	.246	.422	.944	.822	.760	.775	-	
18. 인기도	.426	.429	.423	.367	.392	.303	.226	.372	.482	.397	.288	.417	.907	.772	.701	.715	.894	-

주. ns = 유의하지 않음, * $p < .05$, ** $p < .01$, 이외의 모든 계수는 *** $p < .001$ 에서 유의함.

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이전에 측정모형 검증을 통하여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이전 분석에서 밝힌 것처럼 문항묶음을 통해서 세 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성, 사회적 유능성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홍세희, 2000), RMSEA 값은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을 의미한다(Hu & Bentler, 1999). RMSEA의 경우에는 90%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 모두 이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고, 각 변인들이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측정모형 검증뿐만 아니라 이후 구조모형 검증의 모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15.325	71	.943	.915	.083(.071 - .096)
수정된 측정모형	154.922	70	.966	.949	.064(.051 - .078)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증한 결과, 표 5에서처럼 측정모형의 경우에 χ^2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chi^2 = 215.325$, $p < .001$),

χ^2 검정은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CFI, TLI, RMSEA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CFI = .943, CFI = .915은 .90 이상으로 적합도가 양호하였지만, RMSEA는 .083(90% 신뢰구간: .071-.096)로 90% 신뢰구간이 1.00에 가까운 좋지 않은 적합도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통해 확인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성과 인기도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 = .966, CFI = .949, RMSEA = .064(90% 신뢰구간: .051-.078). 즉, 본 자료에 대한 측정모형이 양호하기 때문에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는 이후의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표 4의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잠재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경로계수인 요인 부하량(β)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4 이상(최저: .440, 최대: .914)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β	t값(C.R.)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어머니정서표현 1	1.000		.912	
	어머니정서표현 2	1.072	.051	.887	21.108***
	어머니정서표현 3	1.021	.053	.845	19.446***
아동의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에 대한 인식	1.000		.614	
	정서에 대한 주의	.936	.154	.461	6.074***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1.656	.207	.741	7.987***
아동의 정서표현성	친밀한 정서표현	1.000		.563	
	부정적 정서표현	.684	.119	.440	5.726***
	긍정적 정서표현	1.182	.158	.788	7.460***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사교성	1.000		.914	
	대인적응성	.811	.040	.837	20.054***
	사회참여도	.995	.048	.853	20.829***
	주도성	.987	.042	.899	23.511***
	인기도	.959	.048	.839	20.028***

*** $p < .001$, C.R. (Critical Ratio).

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결과가 양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매개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이 경로가 제거된 완전매개모형(비교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선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5에서처럼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CFI와 TLI, RMSEA가 모두 양호하여 두 모형 모두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표 5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χ^2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154.922	70	.966	.949	.064(.051-.078)
완전매개모형	164.999	71	.963	.945	.067(.058-.085)

우선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였지만, 두 모형을 비교하여 어느 모형이 더 좋은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된(nested) 관계임을 고려한 χ^2 차이 검증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Delta\chi^2$	Δdf	ΔTLI	ΔCFI	$\Delta RMSEA$
부분매개모형 vs 완전매개모형	-10.077	1	.003	.004	-.003

χ^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_{\text{완전매개모형}} - \chi^2_{\text{부분매개모형}}(1) = 10.077, p < .05$). 두 집단의 χ^2 차이값이 유의함은 자유도가 작은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형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종 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마찬가지로 CFI, TLI, RMSEA를 살펴보다도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약간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채택된 최종모형인 부분매개모형²⁾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량을 알아본 최종모형의 경로도는 그림 3에, 최종모형에서의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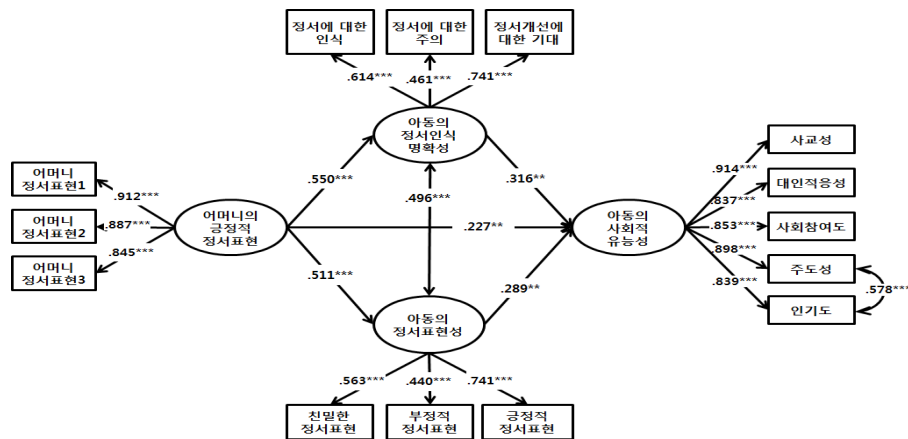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p < .01$, *** $p < .001$.

※ 모든 오차항은 생략함. 비합리적 신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각 잠재변인의 오차항 간 상관(공분산)을 설정하였음.

- 2) 본 연구에서 채택된 최종모형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측정동일성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에서 χ^2 difference(6) = 1.250, $p = .974$ 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구조동일성모형에서 더 좋아졌다. (1) 기저모형(제약을 가하지 않은 경우), TLI = .952, CFI = .968, RMSEA = .053(90% CI = .037-.053), (2) 측정동일성모형(요인부하량만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TLI = .957, CFI = .969, RMSEA = .043(90% CI = .034-.051), (3) 구조동일성모형(요인부하량과 함께 경로계수에 제약을 가한 모형), TLI = .960, CFI = .970, RMSEA = .041(90% CI = .033-.049).

표 7

최종모형의 잠재변인들 간 모수 추정치

경로			B	S.E.	β	t값(C.R.)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289	.087	.227	3.312***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338	.051	.550	6.623***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표현성	.419	.071	.511	5.933***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654	.213	.316	3.076**
아동의 정서표현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448	.150	.289	2.981**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	아동의 정서표현성	.053	.013	.496	4.057***

*** $p < .01$, ** $p < .05$; C.R. (Critical Ratio).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beta = .227$, $t = 3.312$, $p < .001$),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beta = .550$, $t = 6.623$, $p < .001$), 아동의 정서표현성($\beta = .511$, $t = 5.933$, $p < .001$)로 이행되는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긍정적이라고 지각한 아동들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정서인식에 대한 명확성 수준이 높으며, 정서표현성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행되는 경로계수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16$, $t = 3.076$, $p < .01$). 즉,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행되는 경로계수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89$, $t = 2.981$, $p < .01$). 즉, 아동의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의 정서표현성 간 상관계수($r = .496$, $t = 4.057$, $p < .001$)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두 변인 간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의 정서표현성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Z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221 2.786**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표현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188 2.665**

** $p < .01$, * $p < .05$.

분석 결과,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행되는 간접효과($B = .221$, $Z = 2.786$,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거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행되는 간접효과($B = .188$, $Z = 2.665$, $p < .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아동의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 때,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부분매개 하는지(연구모형) 혹은 완전매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결한 최적 모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비교모형(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안라리, 2005; 이종각, 2009)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며,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소연, 2009; 오영희, 우수경, 이화자, 2006; 우수경, 2003; 임현정, 2009; Eisenberg et al., 2000)와는 일관적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한다고 느낀 아동일수록 사교적이고 친구를 쉽게 사귀며, 친구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려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동에게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행동적·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표현성 수준을 높이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아동은 이를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가 언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면 아동도 정서 어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며, 정서에 대한 부

모-자녀 간의 대화가 늘어나면 아동의 정서적 어휘표현의 양 또한 증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표현을 잘 하는 아동들은 타인에게 더 많이 사랑 받으며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성공적인 또래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이르는 경로를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킬 때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을 높이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여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아동은 좀 더 자율적이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이 적고 문제를 야기하는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며 이는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의 역할(매개효과)을 설명함으로써 추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개입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에게 있어 또래는 동일시의 대상이고,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학습하며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는 등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 즉 또래관계는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아동기에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면 후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는 또래관계 형성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등의 관련 요소들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지시키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개발된 정서능력 향상 프로그램들은 정서 능력의 핵심인 정서의 인식과 표현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훈련, 행동 수정, 분노 조절, 공격성 감소 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Dasho, Lewis & Watson, 2001; Graczyk, Weissberg, Payton & Elisa, 2000; Vernon, 1989; 문미옥, 임미혜, 2000), 정서 인식과 정서표현능력 향상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최은실, 방희정, 201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특히 정서인식과 정서표현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짜증난다’나 ‘빡친다’와 같은 짧고 분화되지 않은 단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또래간에 이해받고 수용받는 경험을 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감안할 때,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프로그램 속에서 긍정 및 부정 정서단어 익히기,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연습 등을 포함하고, 역할극 등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정서조절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생(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머니를 함께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표현 방법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훈련을 프로그램내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습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의 전이효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어머니와 자녀간의 정서적 교류를 공고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두 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이다. 이 결과는 두 개 학교 만을 ‘임의표집’하였고 제한된 학년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이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의 아동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중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척도의 경우, 이 척도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만 하였고 5학년들의 이해도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도 이해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의 정서표현성 척도의 경우는 원래 성인의 정서표현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때문에 비록 본 연구에서 반응을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조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이 반응하기 수월하도록 하였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여전히 그 적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하위척도 중 일부는 문항 간 내적합치도가 .52나 .61로 낮았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완전매개하지 않고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 이외에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변인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때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역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서표현성 자체보다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의 적절성 여부가 더 중요한 변인일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비록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채택한 모형에 대한 성별차이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각주 참조), 여전히 정서표현성의 경우 사회에서 남녀에게 요구하는 성격특성이나 기대가 각기 다른데 모든 문화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딸보

다 아들에게 공포와 분노의 통제를 더 강조하고, 아들보다 딸에게 행복의 표현을 더 격려하며(Diener & Lucas, 2004), 남아는 자신감을 갖고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여아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Timmers, Fischer & Manstead, 1998). 이로 인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 억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여되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남아의 정서표현성이 적절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자료는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실제로 어머니가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가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회상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진희 (2006).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원 (2010).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변화와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만 (1999). **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 자아의 성장과 발달**. 서울: 한림미디어.
- 김호정 (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3.
- 문미옥, 임미혜 (2000). **유아의 EQ 증진을 위한 정서교육 활동**. 서울: 학지사.
- 박금옥 (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보은 (2008).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표현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 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최은경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대학논문집(사회과학편)**, 한남대학교 출판부, 제 31집.
- 백미애 (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명순 (2007).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 문화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라리 (2005). **유아의 개인변수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소연 (2009).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수용태도가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 우수경, 이화자 (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육학회지**, 10(1), 149-165.

- 우수경 (2003).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총**, 7(1), 99-115.
- 유진희 (2007). **부모역할이 유아의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정 (1995). **아동의 정서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정화, 이소희 (2002). 사이버 아동상담에서 주호소 문제와 호소 유형에 따른 상담 전략. **한국놀이치료학회지**, 5(1), 81-93.
- 이종각 (2009).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명령적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 표현성, 또래유능성간의 경로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련, 최보가 (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임현정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실, 방희정 (2013).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정서단어와 얼굴표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7-39.
- 하정 (1997). **정서표현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 사고, 행동 영역의 통합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인희 (2007). **정서인식의 정도와 정서조절양식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s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assidy, J., Parke, R. D., Vygot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 Dasho, S., Lewis, C., & Watson, M. (2001). Fostering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lassroom and school: Strategies from the child development project. In J. Cohen (Ed.), *Caring classroom: Intelligent school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Denhan,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 DePaulo, B. M. (1992). Nonverbal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2), 203-244.
- Diener, M. L., & Lucas, R. E. (2004). Adults' desires for children's emotions across 48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5), 525-547.
- Dunn, J., & Brown, J. (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137.
- Eisenberg, N., & McNally, S. (1993). Socialization and mothers' and adolescents'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2), 171-191.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r, M. et al. (200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3-19.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Fullerton, C. S., & Ursano, R. J. (1994). Preadolescent peer friendships: A critical contribution to adult social related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43-63.
- Graczyk, P. A., Weissberg, R. P., Payton, J. W., & Elisa, M. J. (2000). Criteria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school-bas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s. In B. Reuven, & J. D.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pp. 391-410). SanFrancisio: Jossey-Bass.
- Greenberg, M. T., Lengua, L. J. D., & Pinderhughes, E. E. (1999). Predicting developmental outcomes at school entry using a multiple risk model: Four American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403-417.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Cassidy, J., Sh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rtup, W. (1989). Social relation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
- Johnson, D. W., & Roger, J. (2000). **갈등 해결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추병완, 김영은 역.). 서울: 백의. (원저 1995 출판)
-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4), 1209-122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4), 1091-1111.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Palmer Quarterly*, 23(1), 29-44.
- Riggio, R. E., & Friedman, H. S. (1982). The interrelationships of self-monitoring factors, personality traits,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1), 33-45.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 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aefer, E. S. (1961).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6(7), 345-346.
- Timmers, M., Fischer, A. H., & Manstead, A. S. R. (1998). Gender differences in motives for regulating emo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74-986.
- Vernon, A. (2005).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초등학생용** (박경애, 하진의, 윤정혜, 이유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89 출판)
- Weinstein, E. A. (1969).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D. A. Goldstone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753-778). Chicago, IL: Rand and McNally Company.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ABSTRACT

The influence of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impact it has on their social competence :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as mediators

Jang, Eunhye* · Lee, Dong-gwi*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that a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ha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further tested whether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99 students at the 5th and 6th grades in two elementary schools (W-and M-school of Gwanak-Gu and Gumcheon-Gu in Seoul). A total of 293 valid cases were subject to data analysis. The results, using the AMOS 21.0 program, revealed that (a)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a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b) both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have implications for (a) the impact of mothers' positive rearing with regard to their emotionality and the impact upon their children, and (b) the identification of the best targets for intervention (i.e.,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clarity) that can be utilized by teachers and counselors when trying to help children develop their social skills.

Key Words : emotional expressivity, social competence, emotional clarity

투고일 : 2014. 1. 21, 심사일 : 2014. 8. 11, 심사완료일 : 2014. 8. 12

* Yonsei University